

# 목록에 있어서의 일본인명 표기

-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색인에 나타난 표기를 중심으로 -

김 영 귀\*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언론분야(신문)              |
| II. 국가서지와 전거목록           | 3. 출판분야                  |
| 1.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서지         | IV. 도서관에서의 일본인명 표기       |
| 2. 도서관정보전산망과 전거목록        | V.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일본인명 표기 |
| III. 교육·언론·출판분야의 일본인명 표기 | VI. 결론                   |
| 1. 교육분야(교과서)             |                          |

## I. 서 론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름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것이다. 고유하다는 것은 「본디부터 저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과 자기를 구분해 준다. 따라서 고유명사라 함은 「어느 한 사람이나 물건에 한정하여 특별히 그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인명, 지명, 신문, 잡지 등의 이름. 홀로이름씨」<sup>1)</sup>이며, 또 「개개의 특정한 사물을 동류(同類)의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그 사물 고유의 기호로서 사용되는 명칭. 문법상 명사의 한 부류로, 영어 등에서는 철자의 첫자를 대문자로 쓴다. 예컨대, 개인의 성명은 모두 고유명사...」<sup>2)</sup>이다.

\* 부산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

1)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우리말큰사전, 서울, 삼성당, 1981. p. 253.

2) 동아백과사전, V.3, 서울, 동아일보사, 1982. p. 234.

그러므로 개인의 성명은 그 사람 자신과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성명은 바로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은 바로 그 성명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그 성명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것이라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성명 원래의 발음으로 읽어야 하며, 읽는 발음대로 표기되어야 한다. 성명권<sup>3)</sup>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私權으로, 우리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최근에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권리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나 부당하게 권리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권리자는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1975년 재일 한국인 최창화 목사가 제기한 소송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4)</sup>

“『한국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읽는 것은 인권침해다.』 재일 한국인 목사 최창화(崔昌華)씨가 3일 일본 NHK방송에서 자기이름을 「최창화」라고 읽지 않고 「사이, 쇼, 까」라고 읽었다고 일본방송협회를 상대로 사죄와 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 고꾸라(小倉)지부에 제기했다.

최목사는 소장에서 『일본식으로 한국사람의 이름을 읽는 것은 36년간의 식민지 지배 및 창씨개명의 강제와 관계가 없지 않다. 이는 소수자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재일한국인의 이름을 읽는 범을 둘러싼 소송은 이것이 처음이다.

올해 45세의 최목사는 재일대한기독교 고꾸라교회목사로서 재일한국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등 재일한국인의 인권운동에 앞장서 왔다.

소장에 의하면 최목사는 지난 8월26일 기다규수(北九州)시장에게 재일한국인의 인권에 관한 공개질문장을 제출한 뒤 기자단과 회견, 자기이름을

3) 동아백과사전, V.17, 서울, 동아일보사, 1982, p. 233.

4) 한국일보, 1975년, 10월 5일, 7면.

『최창화』라고 재삼 분명히 밝혔는데도 9월1일과 2일 NHK방송은 뉴스시간에서 이색적으로 『사이, 쇼, 까』라고 읽었다는 것이다.”

이 「본명소송」을 계기로 일본사회는 물론 도서관계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한다. 都立江東圖書館, 高知市民圖書館 등이 모든 한국인명을 모국어발음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國立國會圖書館은 일본목록규칙 신판에비판의 규정변경과 관련하여 1983년 7월 한국인명의 독음법을 변경<sup>5)</sup>한 것 등이다.

이것은 인명의 고유성을 인정한 인격권에 관한 것이고, 도서관목록이라는 순수한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인명표기에 문제가 있다.

목록의 기본적인 기능이 될 수 있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sup>6)</sup> 첫째, 식별기능이다. 어떤 자료의 구성, 즉 한 문헌의 물리적 기술과 내용 등으로 다른 문헌과의 상이를 식별하기 위한 기능이다. 둘째, 검색기능이다. 검색하고자하는 자료의 수장여부, 즉 검색의 수단이 되는 저자, 서명, 주제(분류번호 포함)등 어떤 목적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동일한 표목을 함께 모이게 하는 집합의 기능도 갖는다. 셋째, 소재지시기능이다. 자료를 수장하고 있을 때 검색된 자료의 배가위치(배가위치를 지시해 주는 기능이다.

문헌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런 문헌들이 기계가독형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는 온라인목록 도서관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 검색기능이 중요하게 되었다. 검색수단 중의 하나가 개인저자명이다. 특히 검색의 접근점으로서의 인명표기는, 한 저자의 모든 저작은 목록 내에서 그 이름의 한 형태 아래 모두 모여야 한다는 규칙<sup>7)</sup>에서 볼 때

5) 李春澤, “日本圖書館界의 韓國人名 表記法에 관한 考察,” 공주사범대학논문집, 27집 (1989). PP. 359-360.

6) 金南錫, 資料目錄學,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8. PP. 99-100.

7)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 2. ed. by Allen Kent and Harold Lancour. New York: Marcel Dekker, 1969, p. 134.

중요하다. 인명표기가 일관성을 결여하고 불일치하면 검색에 혼란이 오고, 검색효율이 떨어지며, 결국 이용자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同名異人을 식별하고 한 개인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때 이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인명의 전자통제가 필요하며, 그러한 전자통제를 위한 전거목록이 요구된다.

국내의 인명표기에 관한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는 이재철<sup>8)</sup>, 朴尙均<sup>9)</sup>, 이철교<sup>10)</sup>, 崔達鉉<sup>11)</sup>, 高錫俊<sup>12)</sup>, 兪景淑<sup>13)14)</sup>의 연구가 있고, 吳東根<sup>15)</sup>은 전통적인 목록의 표기법 또는 독음에 대한 처리문제가 MARC 포맷에 어떻게 반영되고 포맷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했으나, 표기법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독립된 인명표기법을 다룬 것으로는 李春澤<sup>16)</sup>의 일본도서관계의 한국인명 표기법에 관한 연구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개인명의 고유성의 인정과 그 개인명의 讀音과 표기의 중요성이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학술문헌의 국제적인 교류와 공유를 위한 외국인명의 독음과 표기라는 학술적인 면과, 국내 및 국제간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인명표기의 표준화라는 서지 통정을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이라는 국가서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 8) 이재철, "한글로마자화의 서지목록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도협월보, vol.17, no.4(1976), pp.7-10.
- 9) 朴尙均, "[圖書記號] 組織의 實際 : 當面한 諸問題를 중심으로," 도협월보, vol.19, no.6(1978.7-8), pp. 2-7.
- 10) 이철교, "한글로 표기된 목록카드의 배열에 대하여," 도협월보, vol.19, no.6(1978.7-8), pp. 8-16.
- 11) 최달현, "圖書館目錄上 齣字表記의 實態와 諸 問題-우리나라 公共 및 大學圖書館을 中心으로-", 경북대학교논문집, vol. 28(1979), pp. 209-223.
- 12) 高錫俊, "圖書館目錄에 있어서 標目的 表記에 關하여-標記文字를 中心으로-",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4집(1986), pp. 101-155.
- 13) 兪景淑, "외래어표기법과 도서관목록상의 변자(齣字)표기문제," 부산산업대학교논문집, 제 9집(1988), pp. 151-173.
- 14) 兪景淑, "국어정서법상의 외래어표기문제-프랑스어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논문집, 제 14집 1권(1933.3)
- 15) 吳東根, "MARC 포맷과 표기법," 情報管理學會誌, vol.8, no.1(1991), pp. 33-49.
- 16) 李春澤, "日本圖書館界의 韓國人名 表記法에 對한 考察," 공주사범대학논문집, 27집(1989), pp. 351-363.

연구대상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간으로 간행되는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1965년-1991)의 색인에 나타난 일본인명표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을 택한 것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가중앙도서관이 간행하는 국가서지이며, 그 색인의 인명표기가 타도서관이 표목형식의 확인시 전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명전거목록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그렇게 되면 국내서지통정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추구하는 「도서관정보전산망」의 구축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인명표기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일본인명 표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현재 각 도서관 장서에서 일본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또 계속 일본자료의 수입이 증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일본어의 중요성과 함께 학술교류와 서지정보교환에 인명표기의 일관성과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세계서지통정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현재 교육(교과서), 언론(신문), 출판분야, 그리고 도서관분야에서 사용하는 일본인명 표기의 실태를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색인표기와 비교,분석하여 목록에 있어서 일본인명 표기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표목의 선정에서 일본인명 표기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일본서명 표기는 다루지 못했고, 한글화나 로마자나 하는 표기문자를 다루지 못한 점이다.

## II. 국가서지와 전거목록

### 1. 국립중앙도서관과 국가서지

국립도서관은 국내외문헌의 수집보존도서관이며,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국

가최대의 공공도서관이며, 서지정보 센터이며,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센터이며, 국제도서관시스템에 참여하는 자국의 대표도서관<sup>17)</sup>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중앙도서관으로서 국가서지(National Bibliography)를 발행할 책임을 법적으로 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납본을 법으로서 명문화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문헌 수집보관도서관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서지정보를 체계화하여 국가서지를 발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자원을 축적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고 나아가 서지정보를 제공해 주는 국가서지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활동에 있어서 당면한 여러가지 실제적인 과제들<sup>18)</sup>, 즉 국가서지 수록범위의 확대, 국가서지의 간행빈도와 누적판의 확대, 소급적 주제별 국가서지의 작성, 국가서지위원회의 설치, 국가서지작성의 표준화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효율적인 검색 및 정보제공에 필요한 국가서지 작성의 표준화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가서지는 한 국가의 모든 문헌목록으로서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반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서지정보를 입수하는데도 긴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지의 기술형식은 한 나라의 통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세계서지통제(UBC: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의 기본개념이다. 이러한 이념에 입각하여 서지기술형식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기 위한 시도의 결과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현재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서지표준기술(ISBD: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al Description)

17) 박인웅,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연구,"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과 責任: 國立中央圖書館閉館60周年 記念論文集,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4. p.55.

18) 金南錫, "國立中央圖書館의 國家書誌活動考,"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 국립중앙도서관개관60주년 기념논문집, 1984. pp. 22-26.

의 제정이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서지통정의 중심기관이 되어야 하며, 국제서지통정의 회원도서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서지인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은 국내 서지정보의 핵심이며, 국제서지통정의 기본자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이용에 길잡이가 되는 저자명색인은 타 도서관이 표목형식의 확인시 인명표기의 전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거목록이 없는 도서관은 그것을 그대로 인명전거목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명표기에 대한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가 이루어져야만 이용자의 중요한 검색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명표기의 일관성과 표준화가 요망된다.

## 2. 도서관정보전산망과 전거목록

서지통정을 위한 대표적인 도구는 인쇄(카드)목록이나 인쇄본(주간, 월간, 계간, 연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계가독형식(테이프, 디스크)으로 발행되는 국가서지이다. 많은 국가서지는 현재 국가서지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MARC레코드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sup>19)</sup>

국립중앙도서관이 기계가독형목록(MARC)의 생산자라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책임지워지고 동시에 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sup>20)</sup>이 있다. 1)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에서 발행된 모든 문헌의 데이터베이스를 편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규모의 문헌정보를 온라인 네트워크로 편성하는 책임이 있다. 3) 국립도서관은

19) E. Gredley, A. Hopkinson, 玄圭燮, 吳東根 공역, “國家 MARC네트웍의 諸問題,” 도서관, vol.47, no.3(1992.5-6), pp. 39-40.

20) 玄圭燮, “國立中央圖書館에 賦課된 全國온라인네트웍 編成의 責任과 權限,”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국립중앙도서관개관60주년 기념논문집, 1984, pp. 137-138.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현장도서관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담당할 책임이 있다. 4) 표준화의 劃策은 당연히 국립중앙도서관의 책임이다.

네번째의 표준화 책임이유는 국가서지기관은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의 중앙공급처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분산입력시스템의 주축이 되는 것이다. 중앙공급시스템과 분산입력시스템의 가능성은 전적으로 표준화에 달려 있는 것이며 표준화에 필요한 모든 조치는 도서관과 협의하여 제정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록의 표준화는 온라인네트웍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0년 6월에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계획」을 확정하였고, 이 계획의 최우선을 문헌정보 처리의 표준화에 두고 있다.<sup>21)</sup>

또 1991년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맞이한 변화는, 그 첫째는 법률이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규정하고 그 도서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으로서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통합」과 「외국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그리고 「서지의 표준화」 등을 주요 임무로 부과하고 있으며, 둘째는 도서관진흥법의 취지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기구를 확대 개편하면서 「서지표준과」를 신설하였다는 점이다.<sup>22)</sup> 이런 규정들은 문헌정보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포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부담하여야 할 「서지통정」의 책임을 강조한 법적 조치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과로 1993년 1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FORMAT)” 단행본용이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되었다.<sup>23)</sup>

21) 최영복, “KORMARC의 현재와 미래,” 情報管理學會誌, vol.8, no.1(1991), p. 9.

22) 曹元鏞, “文獻情報 標準화를 위한 國立中央圖書館의 最近 活動,” 도서관, vol.47, no.6(1992, 11-12), pp. 34-35.

23)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단행본용-(KS C 5867), 서울, 동도서관, 1993.



그리고 1993년 11월에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의 전자데이터용 포맷 개발을 위한 공청회 자료」(74 p.)도 나왔으나, 한자데이터의 개인명 표목 표기를 그 독음에 해당하는 한글데이터를 입력하는 KORMARC기술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은 1970년부터 연간으로 124개의 학술도서관이 참여하여 「외국도서종합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목록기술 및 배열은, 동양서는 한국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을 적용한 단위카드이고, 일본도서의 한자는 한글로 읽어 배열하였고, 가나문자는 특수문자로 취급하여 한글 앞에 배열하였다.<sup>24)</sup> 이와 같이 분담목록과 종합목록의 경우도, 전거통제는 중복레코드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출처로 부터 제공된 레코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불가결하게 된다.<sup>25)</sup>

이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명실공히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서지작성기관」으로서 현장도서관에 공헌하고, 또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계획기관」으로서 참가도서관의 협력을 요청하는데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먼저 도서관 이외의 분야인 교육(교과서), 언론(신문), 출판분야에서는 일본인명의 표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 III. 교육 . 언론 . 출판분야의 일본인명 표기

문교부(현 교육부)가 1985년 개정한 「외래어표기법안」,<sup>26)</sup>중 제 4 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가운데, 제 2 절에선 중국과 일본을 한데 묶어 동양의

24) 국립중앙도서관, 외국도서종합목록, 1991, 서울: 동도서관, 1992, p. i.

25) Barbara B. Tillett, "Authority control in the online environment," *Catalogu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9, no.3(1989), p. 2.

26) 문교부, 외래어 표기법, 문교부 고시 제 85-11호, 1886. 1.7.

인명, 지명 표기라 규정하였다. “ 제 1 항:중국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라고 하고, “제 3 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라고 하였다.(p.26) 제 2절의 특징의 하나는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여 혼동을 피하게 한 점이다.

일본의 인명, 지명으로서 꼭 우리 한자음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제 1 장 제 5 항의 규정(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에 의하여 관용어로 특별히 사정하는 길이 남아 있기는 하다.<sup>27)</sup>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의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우리 나라의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 전통은 原地音을 존중한다는 지금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태도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원지음의 도전을 받고 있다.

### 1. 교육분야(교과서)

#### ① 국민학교: (출처: 교육부, 국어 읽기, 5-2, pp. 61-69.)

p. 62: ...역안은 이토 히로부미를 환영하기 위하여 일장기를 들고 나온 환영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p. 68: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러시아 헌병에게 잡힌 안의사는 얼마 후 일본헌병대로 인계되었다.

#### ② 중학교: (출처: 교육부, 국사(상), p. 180)

p. 180: 이 때, 일본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100 여년간 계

27) 문교부(국어연구소편), 외래어표기용례집(지명, 인명), 서울, 법제연구원, 1986, p.40.

속되어온 내란이 끝나고 통일국가가 성립되었다.

③ 고등학교(출처: 교육부, 국사(상), p. 154, (하), p. 23, p. 101)

p. 154(상): 이 무렵, 일본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전국시대의 내란상태가 토요토미히데요시에 의해서 수습되고 있었다.

p. 23(하):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는 조선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쓰시마 도주를 통해 교섭을 허용해 줄 것을 조선에 간청하였다.

p. 101(하): ...의병으로 활약하던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역에서 한국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p. 82(하): 청은 이후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였다. 곧, 위안스카이(袁世凱)등이 지휘하는 군대를 상주시켜 주선 군대를 혼란시키고 마젠창(馬建常)과 뮐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문제들에 깊이 간여하였다.

p. 154(상): 토요데미 히데요시(豊臣秀吉)...「찾아보기」의 예  
 현행 교육부에서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 중, 고의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의 경우, 일본어와 중국어 원음 그대로 표기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에만 漢字를 원괄호 속에 부기하거나 찾아보기(색인)에서 부기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국민학교 때부터 원지음으로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을 알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그 당시 문교부가 새로이 개정한 「외래어표기법」(문교부고시 85-11호: 1986, 1.7.)이 교과서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자를 우리음으로 읽지 않고 원음대로 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함께 한자문화권에 살고 있다. 학생들이 국민학교에서부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이등박문」, 토요데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풍신수길」,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덕천가강」이라 읽지 않고 또 그렇

게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인명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운 외국인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성인이 되어도 그대로 지속되며, 그것은 바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명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운다는 점에서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국제화되는 시대이다. 학술적인 면도 마찬가지다. 이런 국제화시대에서는 의사소통의 기본 매개체인 언어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자기문화의 확장력을 좌우하는 생명력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의 전달수단인 언어의 역할이 이처럼 중시되는 시점에서 지역적인 국한성을 지니는 자국어의 용어를 고집한다면, 자기나라안에서만 통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통용될 수 없는 학술 용어는 국제적인 학술광장에서 전달매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자, 맹자, 노자, 장자로 강의받은 학생들이 일단 국제학술장에 참석했을 때 거기서 통용되는 공쯔, 멩쯔, 라오쯔, 주앙쯔라는 말을 알아들을 리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같은 한자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중국의 학술사상을 이해하는데 편의를 보는 면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식 호칭이나 용어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자기한계에 빠지고, 그래서 의사소통의 영역을 스스로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받고 있는 것이다.<sup>28)</sup>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는 국가교육의 차원에서도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만약, 학생들이 카와바타 야스나리(川端 康成)를 「천단 강성」, 무라카미 하루키(村上 春樹)를 「춘상 춘수」로, 엔도 슈사쿠(遠藤 周作)를 「원등 주작」식으로 배워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다음의 예처럼 영어로 표현된 그들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28) 김충렬, “라오쯔(老子) 인성론의 근본개념-떠(德) -제 38 장의 해석을 통하여-,” 철학과 현실, 1993, 봄호, p. 194.

① Kawabata, Yasunari.

- Snow Country. Seidensticker, Edward G., tr. from JPN.(Perigee Japanese Library), 192p. 1981. pap. 8.95(0-399-50525-3. Perigee Bks) Putnam Pub Group. (Books In Print, 1992-93, v.2 : Authors, New Province, N.J. : Bowker, 1992, p. 3571)

② Murakami, Haruki.

- The Hard-Boiled Wonderland & the End of the World. Birnbaum, Alfred, tr. from JPN. 416p. 1991. 21.95(4-770-01544-5) Kodansha. (Books In Print, 1992-93, v.3: Authors, New Province, N.J.: Bowkwer, 1992, p.4824)

③ ...The special nature of traditional Japanese culture, which made it infertile ground for Christianity in the 16th century, was treated in several moving novels by Endo Shusaku, notably Chimmoku(1966; (Encyclopedia Britannica, v.22. 15th ed. Chicago, 1988, p. 347)

④ ...This is why some of the most famous women writers of the time are known, not by their real names, but by such sobriquets as MURASAKI SIKIBU and SEISHONAGON, which use court titles of male relatives and nicknames. (Kodansha Encyclopedia of Japan, v.5, Tokyo, Kodansha, 1983, p.325)

그런 점에서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일본인명(중국인명을 포함하여)을 원음대로 표기한 것은 국가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2. 언론분야(신문)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을 마련, 사용해왔으며 정부에

대해 외래어표기법통일을 촉구해왔던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986년 1월 31일에 열린 제 34 회 정기총회에서 신문제작에 있어서 외래어표기를 문교부가 제정한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기로 결의했다.<sup>29)</sup> 실제 신문에 나타난 일본인명 및 중국인명을 보자

- ① 제 1회 「한-일 포럼」에 참가차 서울에 온 일본 마이니치 신문 논설위원 가노타다오氏(假野 忠男 48)는 작은 종이 한장을 들고 있었다. (조선일보, 1993,12.9., 21면)
- ② 하기하라 료(萩原 遼)씨는 72년 5월부터 73년 4월까지 일본 공산당 기관지 「赤旗」지의 평양특과원을 지냈다. (한국일보, 1993, 12.13., 21면)
- ③ 호소카와 모리히토(細川 護熙) 日本총리가 14일 새벽 총리관저에서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발표하였다. (매일경제신문, 1993, 12.15., 9면)
- ④ 하타에이 지로(畑英 次郎)일본 농수산상이 17일 일본 쌀과 中國, 泰國, 美國 등 외국쌀로 지은 밥을 함께 맛보면서 쌀맛을 비교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3,12.18., 7면)
- ⑤ 이케다 다다시(池田維) 일본외무성 아시아국장과 王英凡 중국외교부 아시아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협의에서는...(동아일보, 1993, 12.21. 7면)
- ⑥ 지난달 열린 이 회의는 李鵬총리가 관장해야 하는 경제업무를 朱鎔基에게 넘기는 안전을 검토한 후...(동아일보, 1993, 12.14. 7면)
- ⑦ ...대만은 海峽交流基金會(海基會) 許慧佑 사무차장이 협상대표로 나서게 된다. (조선일보, 1993. 12.18. 7면)
- ⑧ 중국의 젊은 대학생들은 毛澤東이 대륙공산화 당시 중국민중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를 잘 파악, 혁명으로 승화시킨 공적을 ...중략...학생들은 또 毛는 물론 현존하는 절대권력자 鄧小平에 대해서도...(동아일보,

---

29) 동아일보, 1986, 2.1., 2면.

1993, 12.16. 39면)

⑨ 중국의 유력 석간신문 베이징완빠오(北京晚報)는 최근 익명을 요구한 북경도핑컨트롤센터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조선일보, 1993. 12. 22. 25면)

⑩ 국제아마육상연맹(IAAF) 약물검사센터가 중국을 기습적으로 방문, 마준런 감독이 이끄는 선수들을 상대로...중략...왕준샤 등 마감독의 여자 중장거리팀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동아일보, 1993, 12.19. 19면)

각 일간신문에 나타난 일본인명의 표기는 일본어 원음으로 표기하며, 그 원음의 漢字를 원괄호 속에 부기하고 있다. 이것은 「외래어표기법」을 따르기로 한 결의를 잘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명, 특히 정치인은 한자로만 표기하여 그 원발음의 표기를 살짝 피하고 독자에게 맡기고 있는 반면, 스포츠인에 대해서는 대개 원발음대로 표기하고 있다. 같은 신문에서 2가지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외래어표기법」의 준수정신에도 어긋날 뿐더러 또 표기의 일관성도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면에서나마 고유명을 원발음대로 표기해 나간다면 앞으로 모든 지면에 확대되리라 믿는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바와 사회에서 접하는 외래어표기와의 일관성은 신문이 가지는 사회제도적인 역할과 그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 3. 출판분야

① 다나카 가쿠에이[田中 角榮] 1918-[1993] 일본의 정치가...

(동아백과사전, v.8, 1982, p. 132)

② 소노 아야코(女)曾野綾子(1931) 日 소설가. 聖心女大 졸. 저작: <먼

데서 온 손님>(54)... (동아연감. 별책 : 외국인인명록, 동아일보사, 1993, p. 360)

- ③ 89년 6월 3일 75代 首相(13代 自民黨總裁)으로 선출된 우노 소스케는 女性 스캔들로 1개월만에 파문을 일으키므로서 65일만에 사임했다. (한국연감(=Korear yearbook), 한국연감사, 1993, p. 469)
- ④ 야마다 히데오 지음, 日本書記入門, 이근우 옮김, 서울 : 민족문화사, 1988.
- ⑤ 다나카 야스오 지음, 어쩐지 크리스탈한, 안도섭 역, 서울 : 문음사, 1981.
- ⑥ 미시마 유키오, 憂國, 주성윤 역, 서울 : 춘추서각, 1980.
- ⑦ 오다 마코토 지음, 임진왜란, 김윤, 강용천 옮김, 서울 : 용진출판, 1992.
- ⑧ 무라카미 하루키, 치즈케이크 모양을 한 나의 가난, 이경덕 옮김, 서울 : 파피루스, 1993.
- ⑨ 후쿠자와 유키치, 文明論의 概略, 정명환 옮김, 서울 : 흥성사, 1986.
- ⑩ 하라이와 유미에, 수선화, 정효영 옮김, 서울 : 소학사, 1993.

국내에서 출판되는 출판물도 일본인명을 원발음대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간행된 출판물은 신문의 표기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표기방식에서의 일관성의 결여이다. 출판사마다 다르게 표기하기 때문이다. (예: 다나카, 다나카) 그래서 표기방식에 대한 전거통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우리나라의 교육, 언론, 출판분야의 일본인명의 표기는 고유명사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인명은 언제 어디서나 그 언어의 원음대로 독음과 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출판계는 표기방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1985)에 준해서 표기해야 할 것이다.



#### IV. 도서관에서의 일본인명 표기

먼저 우리나라의 목록규칙을 살펴보면, 한국목록규칙 수정판(KCR 2)<sup>30)</sup>에는 부록으로 「일본 카나의 한글화표기법」(1963년 7월 문교부 제정)이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일본인명의 한자를 일본음으로 읽어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음으로 읽어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없다. 단지 목록의 여러 예시 중에 일본인명의 번자표목은 山木戶 克己(p.8)는 산목호극기가 아니라 “야마키도, 록키”로, 小野 圭次郎(p.86)은 소야 규차랑이 아니라 “소노, 케이지로오”로, 한자를 일본어 원음으로 읽어 한글표기하였다.

한편 동서와 양서의 공용 목록규칙이며, ISBD의 구두법을 채용한 한국목록규칙 3판(KCR 3)<sup>31)</sup>은 현재 기술 및 표목올림 지시편 만이 발행되어 있으므로, 표목부에 있어서의 표기법 처리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기술규칙은 일본인명과 중국인명, 서양인명의 표기방법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KORMARC의 경우를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KORMARC는 포맷자체에 있어서는 표기법이나 독음에 대하여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고 있다.<sup>32)</sup> 즉 KORMARC에서는 우선 기술부와 검색부를 구분하여, 기술부에는 한자데이터 또는 한자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요소를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고, 검색부에는 그 독음에 해당하는 한글데이터(양서의 경우는 로마자)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부록 1 : 외국인명표기의 원칙」중 일본인명의 표기방법만을 기술하면 다

30)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서울, 同協會, 1966, p. 118.

31)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3版 : 記述, 標目올림指示篇, 서울, 同協會, 1983.

32) 吳東根, “MARC 포맷과 표기법,” 情報管理學會誌, vol.8, no.1(1991), p.41.

음과 같다. 1) 인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한자를 우리음으로 읽어서 표목으로 삼고 서명저작자사항에는 한자를 그대로 기술한다. 2) 한자와 가나(カナ)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한자를 우리음으로 읽어서 표목으로 삼고 서명저작자사항에서는 한자를 기술한다. 또한, 가나의 우리음은 부출한다. 3) 한자와 가나의 우리음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한자를 우리음으로 읽어서 표목으로 삼고 서명저작자사항에는 한자를 기술한다. 또한, 가나의 우리음은 부출한다. 4) 가나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가나를 우리음으로 읽어서 표목과 서명저작자사항에 기술한다. 5) 로마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로마자를 그대로 표목과 서명저작자사항에 기술한다. \* 가나를 우리음으로 표기할 때에는 문교부 제정의 “가나의 우리말표기원칙”에 따른다 33)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 나온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단행본용기술규칙-34)의 「부록 1 : 외국인명표기의 원칙」에 나오는 일본인명의 표기방법 역시 예비노트 보완판의 내용을 수정없이 전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은 동일한 인명이 표제지나 판권지에 기재되는 문자에 따라 표기문자가 달라진다. 즉, 한자, 가나, 로마자 등으로 기재되는 경우, 우리음만으로 기재되는 경우, 두가지 이상의 문자로 기재되는 경우 등에 따라 표기문자가 여러가지로 나타나 이용자가 목록 검색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35)

도서관목록상의 일본인명표기의 무질서와 혼란은 표기법 자체의 불완전성도 있겠지만, 한국목록규칙 3판과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 자체에

33) 국립중앙도서관전산실 편,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단행본용)-에비노트 보완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5, p. 185.

34)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단행본용 기술규칙,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1, p. 157.

35) 高錫俊, “圖書館目錄에 있어서 標目の表記에 대하여-標記文字를 中心으로-,”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4 집(1986), p. 151.

외국인명표기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표기의 일관성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한국목록규칙 3판과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은 동일한 외국인명표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그 전거는 문교부가 제정한 「외래어표기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 간행되지 않은 표목편과 배열편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일본인명 표기를 표준화한다면 이용자가 목록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은 국내서지통정 뿐 아니라 세계서지통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도서관에서는 일본인명 표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특수도서관 중 69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본어자료의 인명표기의 현황<sup>36)</sup>은 다음과 같다.(한자 : 森鷗外, 가나 : 大高 ひさを)

- ① 한자 : 우리음으로 읽어 한글표기: 삼 구 외  
가나 : 일본원음으로 읽어 한글표기 : 대고 히사오 (45개관)
- ② 일본어 원음으로 읽어 한글표기 : 모리 오가이  
오오타카 히사오(12개관)
- ③ 일본어 원음으로 읽어 가나표기 (もり おうがい)  
한자 : 한자 옆이나 위로 토를 단다. : 삼 구 외 (4개관)
- ④ 일본어 원음으로 읽어 한글표기 : 모리 오가이  
오오타카 히사오(2개관)
- ⑤ 한자 : 우리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 : 삼 구 외  
가나가 섞임 : 원음으로 읽어 한글표기 : 오오타카 히사오(1개관)
- ⑥ 한자 : 우리음으로 읽어 한글표기 : 삼 구 외  
서명가나: 번역하여 표기 대고 히사오(1개관)
- ⑦ 저자 : ①의 방식 : 삼 구 외

36) 高錫俊, 앞의 든 논문, p. 110.

서명 : ②의 방식 대고 히사오

⑧ 우리음으로 읽어 한글표기 : 삼 구 외(1개관)

⑨ 일본어 원음으로 읽어 로마자로 표기 : Mori Ogai

Otaka Hisao(2개관)

서명표기 방식과 포함하여 전부 9가지로 표기되고 있다. 인명만을 발췌하면, ①,②,③,⑤,⑨의 5가지 방식으로 압축할 수 있다. ①의 방식이 48개관, ②의 방식이 14개관 ③의 방식이 4개관, ⑤의 방식이 1개관, ⑨의 방식이 2개관이 된다. ①의 방식이 전체의 69%, ②의 방식이 20%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69%(48개관)가 ①의 방식, 즉 한자로 된 일본인명을 한자를 우리음으로 읽어 한글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표기법은 같은 인명이 한자로 쓰일 때와 가나로 쓰일 때 다르게 표기되어 통일성이 없고 현대에 통용되고 있는 원음표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②,③그리고 ⑨ 방식은 일본어 원발음으로 읽어 각각 한글, 가나, 로마자로 표기함으로써 표기를 통일했다는 점에서 일어자료를 읽을 수 있는 이용자에게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명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원음표기의 원칙에도 맞기 때문이다. 물론 한글표기나, 가나표기나, 아니면 로마자 표기나 하는 표기문자는 통일되어야 하겠지만 이 연구의 범주 밖이라 논외로 한다.

그러나 도서관 장서에서 차지하는 일본자료의 비중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일본어 자료가 단일언어 자료로서는 도서관 장서구성에 있어 2-3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래 학자들이나 도서관 이용자들이 일본어 해독자가 많아 일본어 자료를 많이 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의 출판량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sup>37)</sup> 또 일본자료가 계속 증

37) 高錫俊, 앞에 든 논문, p. 141.

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연간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전체 도서 가운데 50 %가 일본어로 씌어진 것이고, 독어와 프랑스어로 씌어진 도서는 합쳐서 10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sup>38)</sup>

그러면 일선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일본인명 표기의 무질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교육, 언론, 출판분야에서는 교육부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일관성있게 표기되고 있는데 자료가 도서관에만 들어오면 왜 난맥상을 보이는가. 사서들은 어떤 표기방식을 쓰든지 만족하지 않았고, 표기의 난해성을 토로했으며, 특히 정리사서들이 한글 세대의 사서들로 세대교체되어 가면서<sup>39)</sup>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 「통일된 번자표가 없다.», 「외국어 실력을 갖춘 사서의 확보가 어렵다」<sup>40)</sup>도 현장 도서관의 목소리이며, 외국어의 능력은 있으나 외래어표기법의 이해없이도 역시 올바른 표준번자를 할 수 없다<sup>41)</sup>는 주장도 있다.

도서관 목록 작성시 일본어 원음에 충실한 일본인명 표기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한국목록규칙과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에서 인명표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며, 2) 그 규정은 문교부의 「외래어표기법」에 준해 표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그렇게 되면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을 따르는 국가서지는 타도서관이 인명표기 형식의 확인시 전자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 사서의 일본어 해독능력과 표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5) 따라서 사서에 대한 일본어 교육의 강화가 있어야 한다. 대

38) 孫正植, “제 2 외국어 경제학,” 週刊每經, 1993, 8.18(통권 719호), p. 79.

39) 高錫俊, 앞에 든 논문, p. 112.

40) 崔達鉉, “圖書館 目錄上 翻字表記의 實態와 諸 問題,” 경북대학교논문집, vol. 28(1979), p. 11.

41) 俞景淑, “외래어표기법과 도서관목록상의 번자(翻字)표기문제,” 부산산업대학교 논문집, 제 9집(1988), pp. 171.

학의 교과과정에 일본어 과목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V.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일본인명 표기

도서관법에 의해 납본이 명문화된 것은 1963년, 동법 시행령이 공포된 것은 1965년으로서 실제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이후부터였다.<sup>42)</sup> 해방이후부터 1962년까지 출판된 국내출판물을 망라하여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으로 「한국목록」을 발행하였다. 이어 1963년도 분과 납본이 실행되기 까지인 1964년도 분을 묶어서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으로 발행하였다.

이 두가지의 서지는 납본이 법으로 시행되기 전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을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는 국가서지의 범주에 넣기가 곤란하다.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은 납본이 실행되는 1965년부터는 연간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통정사업으로 계속 출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서지가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65년도부터 색인에 나타나는 인명표기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표 1.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색인의 일본인명 표기의 변천>

연도	기술방법 및 배열	목록표기	색인의 일본인명표기
1965	①원저자의 국적은 다음과 같이 표시: 미국(미) 일본(일) 독일(독) ②일본인명은 일본음으로 읽어서 한글로 배열(한글학회「가나한글화표기법」에 의함)	河野 實(日) 사랑과 죽음을 바라보며 五味川 純平(日) 戰爭과人間	坂田 榮男(日)... p. 54 사랑社..... p. 70 . 澤本 正己(일)... p. 21

42) 金南碩, 앞의 든 논문, p. 16.

1966	" "	" "	" "
1967	①인명부표기방법은 「로오마자」로 표기한다. 「로오마자」로 표기하지 않는 인명은 「로오마자」로 표기한다. 「로오마자」로 표기하지 않는 인명은 「로오마자」로 표기한다.	마사키, 히로시 미우라, 아야코 엔도, 슈우사쿠 (첫사랑)	告發: 범인은 告白 青春小説 카스야, 고오이치(粕谷, 甲一)..... p. 23  코미카와, 준베이(五味川, 純平)..... p. 40
1968	" "	" "	" "
1969	일본인명과 「로오마자」(「로오마자」, 「차로 표기」)	" "	" "
1970 / 1972	" "	" "	" "
1973	" "	" "	소노 아야코..... p. 104 小池 五郎..... p. 50 小泉 信三..... p. 33  시바 료타로..... p. 104
1974	" "	" "	시바 료타로(司馬遠太郎) 아라시마 타케오..... p. 69 아리다 고스게..... p. 140
1975	" "	" "	미쓰이 요노스게... p. 164 미시마 유키오... p. 102 미야사키 마쓰기... p. 74 미우라 아야코... p. 34
1976	중국인명은 우리음으로 표기한다. 일본인명과 구미어로는 모국어로 읽혀 한 글자로 표기하였다.	" "	" "
1977 / 1983	목록의 기술은 「한국목록규칙(수정판)」에 따라 일반도서에는 저자명 축차간행물은 표제기인	" "	서명색인만 있고 저자색인은 없음
1984 / 1988	목록의 기술은 「한국목록규칙」판에 따라 일반도서는 저자명...	" "	" "
1989 / 1991	① 목록기술은 「한국문헌자료목록기술규칙」에 따라 ② 서명목록을 원칙으로 함 ③ 색인은 저자명과 서명을 혼합하여 편성, 서지사항 아래 <색인번호> 이용	고은재료의 과학과 응용 / 山口明郎 著; 李弘林 譯. - 서울: 半島出版社, 1991. - 272p.; 삽도: 23cm <H08516>	가천, 풍연<H11541> 간노, 마사요시<H03992> 개천, 용지개<H08695>  나가사키, 히로시<H03118> 동전, 평달<H01283> 무라카미, 하루키<H11500>

이상 1965년도 분부터 1991년도 분까지 27년간의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색인에 나타난 일본인명 표기의 특징과 변천을 연도별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1965-66 : 원저자의 국적표시가 있다. 인명은 일본음으로 읽어서 한글로 배열하였고 이는 한글학회의 「가나한글화표기법」에 따른 것이다. 서양인명만 문교부 제정 「로마」자 한글화표기법 원칙을 따랐다.
- ② 1967-72 : 목록과 색인에 저자의 국적표시가 없어지고, 모국어로 발음하여 한글로 표기, 배열하였다. 일본인명도 문교부 제정 「로마」자 한글화표기법에 따르고 있다. 특기할 것은 한글로 표기하는 대신 원괄호에 한자를 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 ③ 1973 : 색인은 한글표기(한자부기가 없다)와 한자표기가 혼합되어 있고, 한문표기는 우리음으로 읽어서 배열하였다. 인명의 모국어 발음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 ④ 1974 : 한글표기와 배열로 되어 있으나, 원괄호에 한자부기를 한 것과 안한 것이 혼합되어 있다.
- ⑤ 1975 : 일본음으로 읽어서 한자부기없이 한글표기와 배열이다.
- ⑥ 1976 : 머리말에서 처음으로 「세계서지통정」이란 어휘가 등장했다. 즉 “本書는 우리나라의 국가서지(National Bibliography)이다....서지의 현대적 관리에 관한 인식은 새로운 차원에 서게 되었고, 이에 대한 중요성과 실체는 국제서지통정(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이란 이름으로 대변된다. 국가서지는 그 나라 출판정보의 완벽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U.B.C.에 있어서의 기본서지(Fundamental Bibliography)이다.”
- ⑦ 1977-1988 : 1977년에 목록의 기술(한국목록규칙, 수정판)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고, 1985년부터 목록의 기술은 “한국목록규칙” 3판에 의해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은 저자색인이 없으므로 인명표기를 조사할 수



없었다.

- ⑧ 1989-91 : 1989년부터 목록기술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기술규칙에 따랐다. 색인은 햇수로 12년만에 다시 등장했다.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 중 「부록 1: 외국인명의 표기원칙」은 5가지 사항의 일본인명 표기방법에서 일본인명이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우리음으로 읽어서 기술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인명표기는 동일인명의 가나와 한자의 우리음 표기가 혼합 배열되었고, 상호참조하게 되어 있다.

상호참조의 예(1989년도분에서 발췌)

- ⑧-1 : 엔도, 슈사쿠<H01981><H11542><H02544> ..... p.621  
 원등, 주작<H01981><H11542><H02544> ..... p.648
- ⑧-2 : 가와바타, 야스나리<H11547><U03390> ..... p.384  
 카와바타, 야스나리<H8718> ..... p.751  
 천단, 강성<H08718><H11547> ..... p.736
- ⑧-3 : 아쿠다가와, 류노스케<H08695> ..... p.608  
 개천, 용지개<H08695><H11557> ..... p.390
- ⑧-4 : 무라카미, 하루키<H11500><H11544><H11524><H11521> ..... p.505  
 촌상, 춘수<H11544> ..... p.741
- ⑧-5 : 소노, 아야코<H04203><H11534><H11545><H11546> ..... p.580  
 중야, 능자<H04203><H11546> ..... p.727

이상 5가지 예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은 첫째, 완전한 상호참조가 되지 않는다. ⑧-2는 한글발음 「천단, 강성」은 <U03390>이 누락, ⑧-4 「촌상, 춘수」는 <H11500><H11524><H11521>이 누락, 그리고 ⑧-5 「중야, 능자」는 <H11534><H11545>이 누락되었다. 두번째는 표기의 일관성의 결여로,

「가와바타」와 「카와바타」가 그 예다. 문교부 제정 「외래어표기법」에 준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과연 한자의 우리발음의 상호참조가 필요한가 이다. 예를 들어, 「아쿠다가와 류노스케」를 아는 이용자는 「개천 용지개」로 찾지 않을 것이며, 「개천 용지개」로 읽는 다는 것도 모를 것이다. 또 한글로 표기된 「개천 용지개」가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인지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앞 장에서 보았듯이 이용자들은 국민학교에서부터 일본어 발음으로 배웠으며, 언론, 출판분야에서도 이미 일본어의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어 한자의 우리발음으로는 모르기 때문이다. 「芥川 龍之介」를 「개천 용지개」로 읽고 또 그렇게 표기하는 곳은 도서관뿐 일 것이다. 상호참조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하나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이용자의 검색을 위한 목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목록을 위한 목록이다.

실제로 일부 도서관에서는 외국문자를 번자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원칙이 없이 역자가 표기한대로 기입하거나 사서가 정리 편의 위주로 표기하는 도서관도 있다.<sup>43)</sup> 이러한 표기의 난맥상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지식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뿐 아니라 타 도서관을 이용할 때마다 정리특성을 알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며 목록업무의 표준화 및 앞으로의 도서관정보전산망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 보다는 오히려 일본어 발음에 한자를 附記해 주는 것(예 : 아쿠다가와 류노스케(芥川 龍之介)이 이용자나 도서관에서의 목록의 표목선정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용자들에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검색에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동일인의 가나와 한자표기를 동시에 알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한글세대 이용자들에겐 그 인명의 정확한 한자표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타 도서관에서 표목을 선정할 때 자료의 인명이 한자이거나 가나이더라

43) 高錫俊, 앞에 든 논문, p. 107.

도 전거자료로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전거목록이 있는 도서관은 참조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전거목록이 없는 도서관은 그것을 바로 전거목록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리사서들이 표기문자에 관한 실제 업무상 “외국 고유명사(지명, 저자명등)을 한글화할 경우 비슷한 여러가지 표기로 될 경우가 많아 복본조사가 지연되거나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전혀 다른 표기가 있어 엉뚱한 곳에 배열되어 목록이 분산되는 사례가 있다”, “일본어인 경우 발음의 정확을 기하지 못해 표기상 문제점이 있다”<sup>44)</sup>고 지적한 바 있다.

한자부기 필요성의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인명의 姓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다. 같은 성이라도 표기는 같으나 다르게 발음되고, 발음은 같으나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45)46)</sup>

1) 표기는 같으나 발음이 다른 경우:

- ① 神崎 博愛(カンザキ ヒロチカ, 칸자키 히로치카)(손성우, p.186)  
 神崎 倫一(コウサキ 린이치, 쿠후사키 린이치)(文藝春秋, 1993.6. p.106)
- ② 羽田 亨(ハネダ トウル, 하네다 토우루)(손성우, p.215)  
 羽田 務(ハタ ツトム, 하타 쓰토무)(文藝春秋, 1993. 7. p.150)
- ③ 清 秀(セイ ヒイズ, 세이 히이주)(土肥 耕三 編, p.843)  
 清 素(セイ키 스나오, 세이키 수나오)( " " )
- ④ 向坂 榮夫(コウサ카 シゲオ, 쿠후사카 시게오)( " p.336)  
 向坂 逸郎(サキサカ イツ로우, 사키사카 이쓰로우)( " " )

2) 발음은 같으나 표기가 다른 경우:

- ① 羽田 務(ハタ ツトム, 하타 쓰토무)(文藝春秋, 1993. 7. p.150)

44) 高錫俊, 앞에 든 논문, p. 108.

45) 孫成祐, 日本著者名便覽, 개정판, 서울: 범한서적, 1973.

46) 土肥 耕三 編, (最新)著者名よみかた辭典 上下, 東京, 日外アソシエーツ, 1985.

柳英 次郎(ハタ エイチロ, 하타 에이치로)(동아일보, 1993. 12.18. 7면)

② 小川 熙男(オガワ テルオ, 오가와 테루오)(손성우, p.170)

尾河 和夫(オガワ カズオ, 오가와 카주오)( " p.109)

③ 城戸 芳彦(キド ヨシヒコ, 키도 요시히코)( " p.156)

木戸 行男(キド ユクオ, 키도 유쿠오)( " p.104)

④ 清 素(セイキ スナオ, 세이키 수나오)(土肥 耕三 編, p.843)

清木 勸浩(セイキ カンジ, 세이키 칸지)( " " )

이 외에도 그런 예는 부지기수이나 어쨌든 일본인명은 그 표기와 발음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나에 한자를 부기해 주는 것이 그 인명을 정확히 알수 있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색인에 나타난 인명 표기는 일본어 발음에 한자가 부기된 1967-72년까지의 표기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한국문헌자동화목록규칙”을 적용한 1989년부터의 표기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신문의 표기가 이상적인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VI. 결 론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연간으로 간행하는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색인에 나타난 일본인명 표기를 조사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명은 그 고유성을 인정하여 원지음으로 표기해야 한다.
2. 학술정보의 교류와 공유를 위해 일본인명은 일본어 발음으로 표기해야 한다.
3. 앞으로 일본자료의 증대가능성을 증시해야 한다.

4. 국가서지를 간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타도서관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5.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표기는 표준화와 국내 및 세계서지통정에 기여해야 한다.
6. 교육, 언론, 출판분야는 문교부 제정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일본인명을 표기하고 있다.
7.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일본인명 표기를 한자를 우리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8.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색인표기는 도서관 목록의 표목선정시 전거자료가 될 수 있다.
9. 「한국목록규칙」과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에 일본인명의 표기에 원지음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10. 사서의 일본어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요망된다.
11. 일본인명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인명에 한자를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인용문헌으로 대신함>

# A Study on the Script and Pronunciation of Japanese Person's Name in Library Cataloging

- About Index of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

Young-kuy Kim\*

Some conclusions can be derived from the study:

1. Person's name should be script by the one's mother tongue because of its uniqueness.

2. Japanese person's name should be script and pronounce their mother tongue for exchange and sharing of an academic information.

3. We can anticipate that Japanese language materials will be increase in near future.

4.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which publish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must have to responsibility to lead other library

5. The script of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must contribute to standardization and national and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6. The area of education, newspaper, publishing are scripting Japanese person's name with script conversion schemes for Koreanization, devised by Ministry of Education.

7. The script of 『Korean National Bibliography』's name index can be used as authority file at selection of heading in library cataloging.

8. Most of libraries script Japanese person's name with Chinese character in Korean language pronunciation.

---

\* Full lecture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usan Women's University

9. Korean Cataloguing Rules(KCR) and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uing(KORMARC) description rules should be defined about the mother tongue script of Japanese person's name.

10. It is desirable to increase of credit of Readings in Japanese material course in college curriculum.

11. Because Japanese person's name is complex and variable that it is desirable to add Chinese character with mother tongue script.